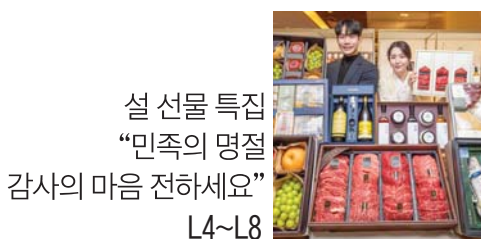


9일 Market Index			
코스피	5298.04	코스닥	1127.55
(+208.90)		(+46.78)	
금리 (국고채 5년)	3.267	환율 (미·달러)	1462.90
(+0.034)		(-6.60)	



설 선물 특집
“민족의 명절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L4~L8

中 파상공세… K-전기차, 안방사수 안간힘

작년 신규등록 수입전기차 43% ‘가성비 전략’ BYD, 6153대 판매 지커·샤오핑 등 국내진출 예고

EV5 롱레인저·EV6 가격인하 등 현대차·기아, 점유율 방어 총력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간 점유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수입산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산 브랜드의 점유율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이 가성비를 앞세운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현대차·기아의 안방 사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22만177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산 전기차는 9만494대로 43%를 차지했다. 수입산 전기차 비중이 40%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판매량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중형 전기 SUV 모델 Y(5만 397대)가 전체 판매량을 이끌었고 지난해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 중국 BYD는 초기 보조금 논란에도 ‘가성비’ 전략을 내세워 6153대를 판매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 기아는 6만609대로 1위를, 현대차는 5만5461대로 3위를 차지하며 2위 테슬라(5만9893대)를 바짝 뒤쫓고 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가득 쌓인 ‘설 자금’

설 연휴를 앞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자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공동취재

지커와 샤오핑 등이 한국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어 국산 브랜드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BYD는 올해 소형 해치백 ‘돌핀’을 공개하며 ‘가성비’ 기조를 이어간다. 돌핀의 가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적용 후 보조금 전용 전 기준으로 2450만원이다. 도합형 전기차 시장에서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BYD코리아는 올해를 한국 승용 시장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연간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설정했다.

지커와 샤오핑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 법인 설립과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 구축

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신차 판매에 나선다. 이들 업체들은 800V 초고압 충전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모델을 통해 국내 완성차 업체와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점유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아는 연초부터 준중형 전기 SUV EV5 롱레인저 모델과 EV6의 판매가격을 각각 280만원, 300만원 인하했다. EV5 스탠다드 모델은 정부·지자체 보조금 등을 적용할 경우 실구매가가 최대 3400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가격 인하보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금리 혜택을 확대 운영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현대 EV 부담 다운 프로모션’의 모빌리티 할부 기준 금리를 기존 5.4%에서 2.6%포인트 인하한 2.8%로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중국산 브랜드의 가성비 전략에 맞춰 경쟁 업체들의 가격 인하 정책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가 구조와 브랜드 경쟁력이 앞으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연속 백덤블링 거뜬 현대차 ‘아틀라스’ 실전투입 훈련 돌입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의 생산 현장 투입을 앞두고 최적화를 위한 혹독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전신 제어 학습을 끝내고 본격 실전 투입 훈련에 돌입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탠다이나믹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옆돌기와 백 텀블링을 연속으로 시연하는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CES 2026 이후 처음 공개되는 아틀라스 영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아틀라스가 개별 동작을 넘어 기계제조 선수와 같이 유연하게 전신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공중제비 후 착지 과정에서 충격을 흡수하며 안정적으로 자세를 회복하는 모습은 전신 제어 알고리즘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영상 공개 기계제조 선수처럼 전신 제어 실패영상 노출, 학습과정 보여줘 “최종 검증 마쳐… 현장투입 훈련”

이번 영상에서는 아틀라스의 실패 영상도 함께 공개돼 더욱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보스탠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가 동작 수행 중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실패 영상도 여과 없이 노출함으로써, 인공지능 강화학습을 통한 성능 개선 과정을 보여줬다.

보스탠다이나믹스 측은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가동에 따라 연구용 버전의 성능 테스트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로보틱스·AI(RAI) 연구소와 협력해 이동성 한계를 시험하는 최종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연구 단계를 마친 아틀라스는 이제 현대차그룹의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되어 실전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의 신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스를 도입해 부품 분류 및 서열 작업을 맡기고, 2030년부터는 정교한 부품 조립 공정까지 작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아틀라스가 백 텀블링을 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인터넷은행 ‘영토 확장’… 해외에 비대면 금융모델 이식

카카오뱅크, 태국 SCBX와 맞손 하반기 현지에 ‘가상은행’ 출범 케이뱅크, 韓·중동 송금망 고도화 국내 BPMG·UAE 체인저와 협력

비대면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해외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규제가 엄격한 국내 금융산업 특성상 내부 경쟁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기존 영업 확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바일에 강점을 가진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금융모델을 이식하며 현지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국 내 ‘가상은행(Virtual Bank)’을 출범할 예정이다. 지

난달 말 양사는 가상은행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현지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 선제적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에 1140억원을 투자했고, 슈퍼뱅크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가치는 2044억원 수준으로, 초기 투자금(1140억원)을 크게 웃돈다.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모바일 금융 시스템 구축과 운영 노하우 전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케이뱅크도 해외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 UAE 디지털자산 기업 체인저와 협력해 한국-중동 간 국제 송금망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케이뱅크는 원화 정산을, 체인저는 디르함 정산을 맡고, BPMG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및 환전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현재 원화-디르함 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술 검증(PoC)에 착수한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국제송금망의 속도와 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 역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다. 그간 축적해온 간편 송금·여수신 서비스 역량과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계적 확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편성, 투명한 비용 구조, 사용자

경험(UX)을 차별화 요소로 삼아 현지 규제 환경에 맞춘 유연한 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룬 인터넷은행들이 이제는 ‘수익 다변화’와 ‘플랫폼 수출’이란 과제를 안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단순 진출을 넘어 현지 금융 생태계에 얼마나 깊숙이 안착할 수 있을 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변수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사실상 성숙 단계에 접어들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의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외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지 규제 이해도와 파트너십 안정성,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5.8% ‘잘못한다’ 39.1% /사진 뉴시스
▲김 총리 “서울시장 안 나간다…지금은 국정에 전념”

▲하정우 靑수석, 시민단체와 AI 간담회…양극화·일자리 대책 의견수렴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식발

▲국힘 “李, 임대사업자 ‘악의 축’ 치부…부동산 문제, 편 가르기로 해결 안 돼”
▲송인석 “대정부질문, 유치한 정쟁 대신 한미 관계·부동산 등 낱알이 검증”